

挑戰과 應戰

개교 79주년 기념

『사설』

개교 79주년 기념을 맞아 본지는 79년 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1906년 5월 7일, 개교를 맞이한 본지는 79년간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항상 단결과 협력을 통해 극복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초반의 민주화 운동에서 본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또한,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캠퍼스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본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회와 소통할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본지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79주년을 맞아, 본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朴洪宗 이사장 告辭

안녕하십니까. 본 이사장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본 대학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본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본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佛敎思想바탕둔 보편적 학문지향

『佛敎思想바탕둔 보편적 학문지향』은 본 대학의 학문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보편적 학문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보편적 학문지향을 추구해 왔다. 이는 본 대학의 전통이자, 본 대학의 강점이다. 본 대학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보편적 학문지향을 추구해 왔다. 이는 본 대학의 전통이자, 본 대학의 강점이다. 본 대학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보편적 학문지향을 추구해 왔다. 이는 본 대학의 전통이자, 본 대학의 강점이다.

巨木성장이 위한 全東國人 노력 절실

『巨木성장이 위한 全東國人 노력 절실』은 본 대학의 성장을 위한, 전 동포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본 대학의 발전은 전 동포의 노력에 달려 있다. 본 대학은 전 동포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본 대학의 발전은 전 동포의 노력에 달려 있다. 본 대학은 전 동포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본 대학의 발전은 전 동포의 노력에 달려 있다.

開校 79周年紀念

본 대학은 1906년 5월 7일 개교를 맞이하여 79주년을 맞이한다. 이 기간 동안 본 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본 대학은 1906년 5월 7일 개교를 맞이하여 79주년을 맞이한다. 이 기간 동안 본 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본 대학은 1906년 5월 7일 개교를 맞이하여 79주년을 맞이한다. 이 기간 동안 본 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黃壽永 總長 紀念辭

안녕하십니까. 본 총장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본 대학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본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본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본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본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民族私學「으로」人間존엄성 實現

『民族私學「으로」人間존엄성 實現』은 본 대학의 사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민족 사립학교로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민족 사립학교로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민족 사립학교로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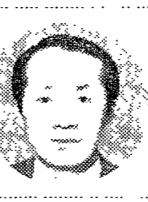
정주3 個單科大개편은 道안계기

『정주3 個單科大개편은 道안계기』은 본 대학의 정주 3개 단일과를 대개편하는 것이 도안계기임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정주 3개 단일과를 대개편하는 것이 도안계기임을 강조한다. 본 대학은 정주 3개 단일과를 대개편하는 것이 도안계기임을 강조한다.

人間科學

尹柱億

『人間科學』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본 대학은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본 대학은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본 대학은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안녕하십니까. 본 대학의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본 대학은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본 대학은 인간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眞理의 햇불 높이 들고

『眞理의 햇불 높이 들고』는 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한다.

순간처럼 영원처럼

『순간처럼 영원처럼』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趙炳華 自選詩 人生論 1 2

『趙炳華 自選詩 人生論 1 2』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본 대학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불꽃이며, 이어둠을!

제 공인노무사시험안내

『제 공인노무사시험안내』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본 대학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본 대학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회원가입방법 및 상담 : 서울은 745-1181-2

○전화로 신청하시고 교재수령시
입회비 16,000원 납입하시고
매월 10,000원의 8회분(총 96,000)
※회원이 없으신분은 기독교 B/D808호로 오십시오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공개세미나 실시(100명 선착순)

한국공인노무고시연수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 136-46 (기독교회관 808호)
전화 : 745-1181-2

학생증분실공고

『학생증분실공고』는 학생증 분실 공고를 게시한다. 본 대학은 학생증 분실 공고를 게시한다. 본 대학은 학생증 분실 공고를 게시한다.

학번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8823020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1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2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3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4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5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6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7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8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29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0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1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2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3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4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5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6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7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8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39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823040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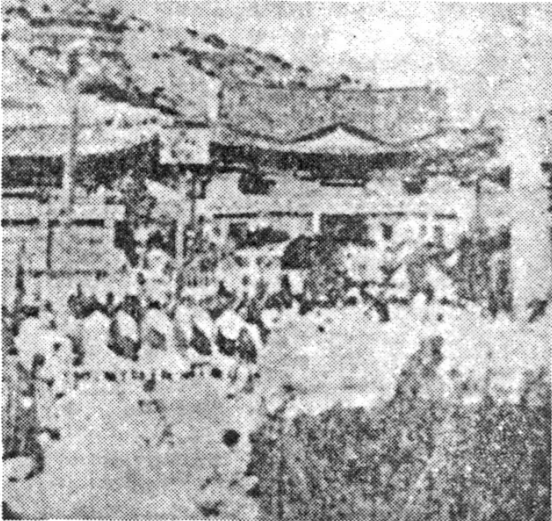
2. 상거자는 85. 5. 9 ~ 85. 5. 15. 까지 학생과에 사 학생증을 교부받기 바람.
1985년 5월

학생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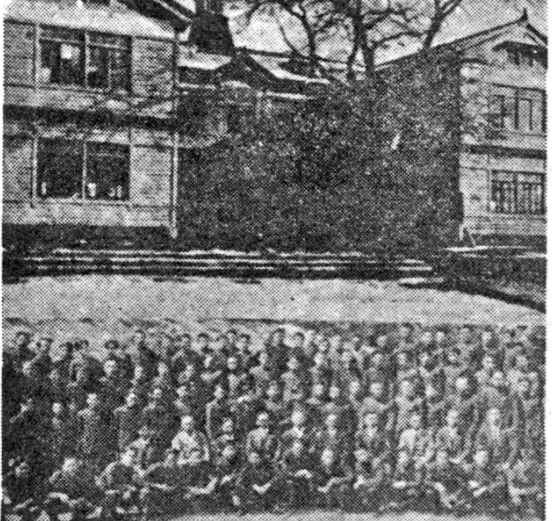
○ 민족·민중佛敎로서의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본
 ○ 가 설립된지도 어언79개년, 압축한 祖國現實 타개
 ○ 는 교육을 통해 이땅의 젊은이가 주도해왔기에 明
 ○ 進學校—惠化專門—東國大學—東國大學校에 이르기
 ○ 까지 이러한 대명제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본紙
 ○ 는 民族精神의 요람인 本校의 79年史를 사진으
 ○ 로 再現해본다. <편집자 註>

民族精神의 산실·民族文化의 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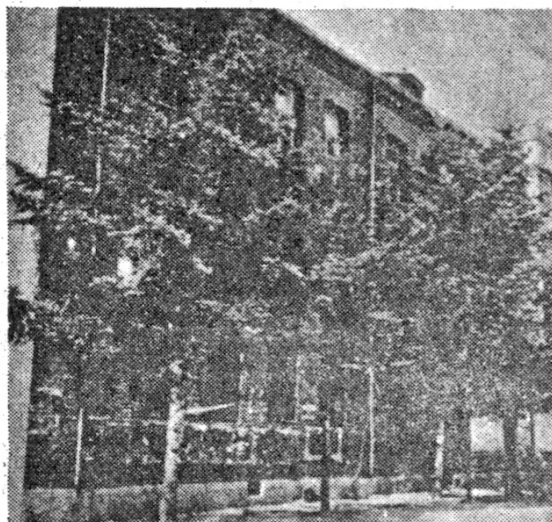
— 明進에서 東國까지... 화보 79년



1 明進學校 1906년, 불교도에게 신학문을 교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佛敎研究會』 회원들이 都絶勝의 李寅潭을 중심으로 마침내 동년 1월 京山 各寺대표들을 모아 『布敎의興學의과정을 성취하려면 近代의인교육제도를 갖추는것이외에 없다』고 결론, 중앙에 進明學校로 불교학교를 세우기로결정내렸다. 이어 明進學校로 교명을결정, 동년 2월 4일 교칙제정과함께 2월 9일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초대 이사장으로 洪月初, 교장으로는 李寅潭이 각각선임되었으며 당시교훈은 『慈愛·修善』이고 학제의 기본정신은 『승려에게 宗乘·餘業 신학문을 교수하여그의 實德을 고양케하고 겸하여 포교도의 인재를 양성하는것』이었다.



2 中央佛傳 1930년 4월 7일 『中央佛敎專門學校』란 명칭으로 명실상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昇格되었다. 이의 승격을 위해 활약하던중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서 3·1운동당시 抗日투사의 양성소였다는 점이다. 이는 民族의 대학임을 입증해 주는 實史라 하겠다. 이어 1933년 1월 16日 中央佛傳의 폐지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대학 살피보면 敎務院 재정형편상 23년에 인수한 보성고보와 함께 兩校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보조비가 적게드는 보성고보를 경영하고 中央佛傳은 정리하자는 내용의 안건이었다. 이에 이慶止의 反對運動은 재정 獨立생활의 긴급성이회의를 통해 贊同을 얻고 마침내 停刊된 것이다.



3 惠化專門 1943년 10월 1日자로 中央佛傳의 停刊後 惠化專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불교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족의 수난사를 깊이 짊어온 본교의 수난사를 깊이 짊어온 본교의 수난사...

4 東國大學 解放前인 1946년 5월 20日자로 東國大學 專門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민족의 수난사를 깊이 짊어온 본교의 수난사...



5 東大新聞 創刊 1947년 1월 1日자로 東大新聞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민족의 수난사...



6 4·19革命 不義와 獨裁에 항거하여 社會의 不條理를 糾正하는 학생운동의 선봉이던 本校는 4·19 당시 正義를 갈구하는 피끓는 합성으로 분연히 봉기했다. 민중운동의 旗手로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獨立하던중 경우대 입구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탄사에 故盧熙斗(법학) 학생이 이슬로 사라졌으며 약 40여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東國精神을 기저로한 正義수행과 民衆위주의 양심적 행위의 발로로서 현재까지의 그 精神이 鮮명히 이어져 내려오고있다. 이러한 先烈들의 뜻을 모아 그 이듬해인 61년 東友塔을 건립, 靑史의 영원한 빛으로써 歷史의 한 장을 남겼다.



8 梁柱東 박사 國문학의 맥을 이어 대 國문학의 주도적 인물이었다. 구한말 민족구국자 高海 韓龍燾를 필두로 趙芝薰 趙演欽 徐廷柱 등 國文學의 계승발전을 주도해온 東國文學은 양주동박사에 이르러 비로소 단개하게 된다. 자칭 국보였던 梁柱東은 합기의 범역으로 우리고전문화 연구의 새장을 열었고 國문학을 확고히했다. 그러나 오늘의 東國文學의 現위치는 歷史와 傳統을 되살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近代國文學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선배의 업적을 우리는 침체된 오늘의 東國文學속에서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원내는 젊었을때의 梁柱東)



9 白性郁 총장 別世 1953년 제 2대 총장으로 本校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東國인으로 81년 9월 18日 別世했다. 民族의 수난기에 本校를 民族의 大學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白性郁은 外的인 발전, 즉 중앙당의 건립 및 석조관 건립등 뿐만 아니라 內的인 東國大學의 活性化에 큰 기여를 해왔다. 현재 예년에 비해 침체된 東國을 새로운 계기로 中興 시킬수 있는 저력 또한 民族의 大學으로 굳건히 지켜온 白性郁 총장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 慶州 캠퍼스 東國80年史에 輝煌한 100週年을 맞아 1985년 5월 1日자로 慶州 캠퍼스가 개교되었다. 이 캠퍼스는 민족의 수난사...

7 유신정권 반대로 인한 休校令 民族의 수난사를 깊이 짊어온 본교는 1973년 유신정권에 반대로 인하여 休校令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는 민족의 수난사...



롯데제과

롯데 인삼검
이제 신사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사들 사이에 롯데 인삼검이 인기입니다. 대한민국 전매품인 인삼을 원료로 만든 롯데 인삼검! 인삼의 효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난 후나 식사후, 술마시고 난 후에 인삼검을 씹으면 인삼 특유의 향기가 입안을 상쾌하게 씻어 줍니다. 롯데 인삼검은 신사의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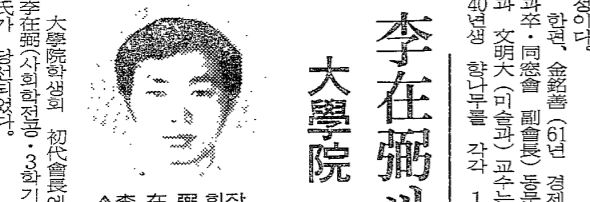


희망소비자기적 : 100원
롯데인삼검



又 다른 흥들

이차! 하하! 순간! 바로! 모로양에... (A short, humorous piece or commentary.)



李在弼 씨 당선

大學院 학생회장에 李在弼 씨 당선 (News about the election of a student council member.)

洛山寺서 해송百株 교수·同門도 獻樹 (News about a tree-planting ceremony at a temple.)

數學교육 세미나 京都大岩井교수 초청해 (News about a mathematics education seminar.)

19회 外試 成績시현의 金尚一군 합격 (News about exam results for a specific group.)

중고과학잡지 8월 14일 까지 (Notice about a magazine subscription deadline.)

東國大學 善敏同門 (Notice from a alumni association.)

특별 特別 (A notice or announcement.)

학생복지 委員會 임대업자 간담회 (News about a meeting of a student welfare committee.)

보민수 記者모집 (Notice about a recruitment drive for a publication.)

趙相賢 씨 記者모집 (Another notice about recruitment.)

정정하 학생대변기구 노력

경주총학생회 정신출발

경주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정하)는 10월 11일(수) 오후 2시에 학생대변기구(학생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洛山寺서 해송百株 교수·同門도 獻樹

洛山寺(洛山寺)에서 10월 11일(수) 오후 2시에 해송(海松) 100주를 헌樹(헌樹)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數學교육 세미나 京都大岩井교수 초청해

數學교육(數學教育) 세미나가 10월 11일(수)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京都大(京都大學)의 岩井(岩井) 교수가 초청되어...

19회 外試 成績시현의 金尚一군 합격

19회 外試(外試)의 成績시현(成績시현) 결과 金尚一(金尚一) 군이 합격했다.

중고과학잡지 8월 14일 까지

중고과학잡지(中高科學雜誌)의 8월 14일(14日)까지의 구독 신청을 마감한다.

東國大學 善敏同門

東國大學(東國大學)의 善敏(善敏) 동문회(同門會)에서...

특별 特別

특별(特別) notice or announcement.

言論의 외부간섭 부당

大學新聞의 自律權에 대하여 (On the independence of university news.)

홍보위, 官중속 의미

기관지 성격배제가 先決과제 (The elimination of official influence is a prerequisite.)

홍보위원회(홍보위)의 성격배제(性格배제)가 기관지(機關紙)의 독립(獨立)을 위한 先決(先決) 과제(課題)이다.



大學新聞의 自律權에 대하여

大學新聞(大學新聞)의 自律權(自律權)에 대하여는...

홍보위원회(홍보위)의 성격배제(性格배제)가 기관지(機關紙)의 독립(獨立)을 위한 先決(先決) 과제(課題)이다.

도시관의 현실태 진단

도시관(都市官)의 현실태(現實態) 진단 (Diagnosis of the current state of city officials.)

도시관(都市官)의 현실태(現實態)를 진단하는 데에는...

노동조합 중의 요구

노동조합(勞動組合)에서의 요구 (Requirements in labor unions.)

노동조합(勞動組合)에서의 요구(要求)는...

한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韓國的 現實) (The reality of Korea.)

한국의 현실(韓國的 現實)에 관하여는...

행사의달 5월... 더이상 不信·外面 없어야

행사의달(行事의달) 5월... 더이상 不信(不信)·外面(外面) 없어야 (In May, the month of activities, there should be no more distrust or external influence.)

행사의달(行事의달) 5월... 더이상 不信(不信)·外面(外面) 없어야 (Continuation of the article.)

Various small notices, advertisements, and announcements at the bottom of the page.

웃소공 양기훈 <22>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재곤은 '동아일보' 기자로서의 일선기생황에서 떠나 이젠바 데스크 일을 하면서 동아일보의 '기자의 눈' '오늘과 내일' '나에 발표했던 것과 신문잡지에 발표했던 시평등을 모은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기자의 눈' '오늘과 내일' 2부 '의로운 승냥이' '서른세나' '기자의 눈' 3부 '동아일보를 위한 변명' 4부 '산자야마'로 되어있다.

<전역원정 > 314면 · 3,200원

아! 폴란드 제임스·A·미치너를 宋赫復譯 13세기 초반부터 19세기의 말엽에 사달려온 폴란드의 승려명령을 감동적인 소설로 펴낸 미치너의 '아! 폴란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작가의 현경문화적 탐험성과 취향이 발휘된 작품으로 폴란드의 기구한 지정학적 위치에 소설을 연결시키면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난 공감과 연민을 전면에 걸쳐 풍기고 있다.

<트람판 > 363면 · 3,600원

아마겔론의 대異變 고도·벤 황 이호진譯 「지구최후의 날」을 더 발전시킨 보다 현실적인 현대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아마겔론의 대異變」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닥쳐올 「인류미해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예언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김없이 적중해온 역사적인 사건들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면서 앞으로 닥칠 우리를, 우리조국과 전인류가 당면한 혁명이 이르기까지 깊은 영지로 파헤쳐놓았다.

<태광문화사 > 216면 · 3,000원

어느 농민의 죽음

지난 24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는 삼척군이 폭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을 비판, 한主婦가 극악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렸고 연이어 25일 신문에서는 소금이 떨어지는 것을 비판해 오던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였다.

生産費에도 못미치는 農産物價格때문에 「살아갈 걱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農村現實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으로 정부는 농산물저가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의 손해를 보아주고 있다. 이러한 선가적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흉작이 되어도 격정적이지만 설명

작이 된다는 치머라도 하락할 농산물價格問題를 생각하면 즐거움 보다는 근심이 앞선다.

한 단에 2백원 밖에하지 않는 삼척삼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 한 그루에 1만 2천원하는 의제 우동 예기는 먼 나라의 것으로 들리지않을까? 머나나 피부미용을 위해 남들은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는 우유에 목욕을 즐긴다는 것은(?)아주머니의 이야기는 1년동안 고생하여 기

는다는 한가지 이유때문에 장가 가기가 어려워 젊은 이들은 하나 둘 고향을 등지고 있다.

더우기 농산물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적자를 메꾸기 위해 얻어다 쓴 부채누적으로 농촌은 점점 피폐되어가고 조급이라도 나온삼을 찾지못해서 시골을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離農現狀을 늘어나고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의로시설이 거의 없고, 심한 勞



▲근원적차원에서 영농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듯 농약중독과 영양실조로 지쳐있는 농민들에게는 오신 어른들이 말하는 잘 사는 「복지농촌」은 한낱 戲畫的인 표현에 지나지않을것이다. 이러한 농촌상태는 수월

정한 소득본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전한 농촌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농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농촌문제의 모순점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처참한 농민생활은 또 다른 슬픔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신 중 호 <경주 법경대 무역학과>

국문과 신입생 백일장 당선작

백 승 권

江流하 다투듯 흐름으로써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남아지는 江流하 너는 내 품 안 젊은 물결의 모를 지워주고 제 키에 겨운 말뚝 포기를 바다 쪽으로 멀리 속이게 한다.

언저리에서 자라는 여새 비듬의 무엇들 해마다 물친 歷史를 힘껏 뿌리에 담고 비람이나 잠대비 오리라 살피게 받아 잠든 것들을 무시로 일깨운다.

江流하 그러나 너는 저를 무렵에야 가장 가슴 가까이서 흐른다. 산 것들이 듣는 歸-의 소리 그 아득한 속삭임으로 돌아오게 한다.

<문과대 국문과>

가르치는 것도 예술

라 은 주 <문과대 국문과> 君君臣臣 師師弟第라 했다. 입금이 입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고 스승이 스승다워야 제자가 제자답다는 말이다.

교육실습 4주간은 온통 부끄러움 일색이었다. 몇 때도 한참 떨린 스승으로, 빗꽃같은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들 앞에 서있었다. 떨린 스승에게 바른 제자들이 안겨주던 기쁨, 인간적인 애정까지도 마다하던 몇 아이들의 안타까운 눈초리, 양친한 사회에 뛰어든다는 노란 기쁨.

한 세월이 지난 느낌이었다. 애써 볼을 찾으며 머뭇머뭇 하던 東路路가 초여름의 화사한 꽃으로 덮여있어서란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이상으로 많은것을 겪고 깨달은 때였을것이다. 스승다우려 애쓰고 노력한만큼 大學4년에 상인다는 말이 붙어가는것 같았다.

트치는것도 예술」이라 할만큼 교수방법은 중요했다. 어설피지만 두 주 정도 한 실제수업은 보람있는 것이었다.

세태가 변하면 사물도 변하게 마련이다. 선생들도 아이들도 옛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아이들이 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치고, 도대체 교사나 교사는 몇이나 될까? 의욕상실과 나태, 권위주의.

물론 「교직 회의와 상태」라고 말할시던 어느 선생님의 말씀대로 문교행정이나 여러 복지문제, 사회적지위들이 떨어지니라는 건 외부로 거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뭔가 가르치는 일장이란 최소한 사명의식이란 뭔가 책임감 정도는 갖고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긴 「돈 내고 교사하라」는 편에 열리지 않는 오유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스승이 아니었다.

좋은 것을 보았든, 나쁜것을 보았든 이제 스승다운이 뭔가 같이 하지는것 같다. 꼭 스승이 아니더라도 거짓이 아닌 眞實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세상 좋은 줄과 고운 빛깔이 되지 않을까.

이젠 東路로 돌아왔으니 일단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고 교사서 흉도 보고 칭찬도 해 볼 일이다.

교육실습기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갔던 곳은 서울 시내에서든 대개 가난한 노무자들이 모여사는 번두리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울음, 낯이 해진 바지를 보이기 싫어 울지던 어린 아이들, 도시락을 못써서 점심시간만 되면 울던 나그네리던 아이들.

대학생 선생님은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기때문에 울어버린 작은 아이, 가난 따위로 이미 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란 그까...

그래도 그들은 아름다운 가슴을 갖고 있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아주 사소한것에 감동하고, 물레 만들때 한손이들 꺾어두고 들고 가는 예쁜 마음이 있었다. 특히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선생님의 눈에서 벗어나 아이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의해 그냥 문제가아 되어 버리는 아이들도 적잖은 것 같아 무척 속이 상했다.

국문과 신입생 백 일장 당선작

『오리』

『오리』는 오름이 시냇가에 간지럼을 태운다. 멀찍한 하늘 아래 개미들은 거대한 흙덩이를 부어놓는 듯 출기로 천재지변을 겪는 셈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겐 재만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이었고... 그리고 보니, 그들에게 내게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배려이건 악의의 심성이건, 내가 먼저 주는 배려조차 돌려버린 동료의 무릎에 앙의는 커녕 저 할 일에 한 몸 여유도 없이 다리를 뻗릴 뿐이다.

『오』

특별히까지 기어 올라 뿔뿔을 간지럼하는 개미를 뿔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비현실의 숲

그것 정확하게 내 눈 앞에서. 비가 오는 날인가, 한 친구가 숲에 빠졌다. 그가 그 안에 처박혀서 무엇을 하는 지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지만, 물결기 나무를 구별도 못한 이 밤에 어떻게 간단 말인가. 결국 난 텐트의 효용을 생각해 천 채 밭을 새웠고 친구는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 앞에 당황하여 귀로를 버렸다.

『오』

『오』는 오름이 시냇가에 간지럼을 태운다. 멀찍한 하늘 아래 개미들은 거대한 흙덩이를 부어놓는 듯 출기로 천재지변을 겪는 셈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겐 재만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이었고... 그리고 보니, 그들에게 내게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배려이건 악의의 심성이건, 내가 먼저 주는 배려조차 돌려버린 동료의 무릎에 앙의는 커녕 저 할 일에 한 몸 여유도 없이 다리를 뻗릴 뿐이다.

국문과 신입생 백 일장 당선작

『오』

『오』는 오름이 시냇가에 간지럼을 태운다. 멀찍한 하늘 아래 개미들은 거대한 흙덩이를 부어놓는 듯 출기로 천재지변을 겪는 셈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겐 재만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이었고... 그리고 보니, 그들에게 내게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배려이건 악의의 심성이건, 내가 먼저 주는 배려조차 돌려버린 동료의 무릎에 앙의는 커녕 저 할 일에 한 몸 여유도 없이 다리를 뻗릴 뿐이다.

국문과 신입생 백 일장 당선작

『오』

『오』는 오름이 시냇가에 간지럼을 태운다. 멀찍한 하늘 아래 개미들은 거대한 흙덩이를 부어놓는 듯 출기로 천재지변을 겪는 셈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겐 재만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이었고... 그리고 보니, 그들에게 내게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배려이건 악의의 심성이건, 내가 먼저 주는 배려조차 돌려버린 동료의 무릎에 앙의는 커녕 저 할 일에 한 몸 여유도 없이 다리를 뻗릴 뿐이다.

국문과 신입생 백 일장 당선작

『오』

『오』는 오름이 시냇가에 간지럼을 태운다. 멀찍한 하늘 아래 개미들은 거대한 흙덩이를 부어놓는 듯 출기로 천재지변을 겪는 셈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의겐 재만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의 숲이었고... 그리고 보니, 그들에게 내게는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배려이건 악의의 심성이건, 내가 먼저 주는 배려조차 돌려버린 동료의 무릎에 앙의는 커녕 저 할 일에 한 몸 여유도 없이 다리를 뻗릴 뿐이다.

크리넥스 애용자 여러분의 정성이 이제 100만 그루의 나무로 이 땅에 뿌리내립니다.

1차조립 100만그루

작년 8월부터 저희 유한김벌리가 벌여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크리넥스 애용자 여러분의 절제적 성원으로 이제 그 첫번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넥스 매출액중에서 기증된 조립기금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채배한 묘목 100만 그루가 이번 국민식수기간(3월20일~4월20일)에 전국 8개도 360ha에 마련된 「크리넥스 식수단지」에 식수되었습니다.

우리국토를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크리넥스 애용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100만 그루의 나무로 이 땅에 뿌리내려, 먼 훗날 울창한 숲으로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캠페인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간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김벌리

유한김벌리

우리가 강산 푸르게 푸르게

Kleenex® Tissues Help Us Help KEEP KOREA GREEN.